

기획

“몸으로 말하고 노래하고...무대는 곧 나”



(8) 현대무용가 김미선

그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무대에서 춤을 추던 그녀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붉은 옷을 입은 그녀는 칠 새에 뛰고, 구르고, 하늘로 치솟았다. 박진감 넘치는 군무진들과 어울릴 때도, 그 넓은 무대에서 홀로 춤을 출 때도 그녀의 작품을 완전히 장악했다. 온몸을 악기처럼 연주하는 그녀의 몸에서는 노래가 울렸고, 환희와 슬픔이 흘렀다. 모든 것을 무대 위에 다 쏟아내고, 그렇게 사라져 버릴 것 같았다.

2009년 봄 광주무용제 참가작 '천개의 공간'에서 춤을 추던 현대무용가 김미선(33)씨의 모습은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이후에 만난 작품에서도, 무대 위의 그녀는 언제나 열정적이었다.

“무대에 올라가면 특유의 냄새가 나요. 남들은 뭐 먼저 냄새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특유의 냄새를 맡으면 심장이 빨라져요. 한편으로는 편안함도 느끼죠. 무대에서 제 모든 걸 내보였을 때 오는 쾌감, 그게 절 무대로 이끄는 힘이지요.”

인터뷰를 위해 만난 김씨는 생각했던 것 보다 예소했다. 무대에서는 그렇게 크게 보였는데.

김씨는 초등학교 시절 MBC어린이합창단으로 활동했다. 노래 부르는 것도 좋아했지만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아가자기한 안무들에 마음을 빼앗겼다. 학운여중 1학년 때 무용선생님의 권유로 무용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발레였고, 2학년 때 현대무용을 시작하고 토슈즈를 벗는 순간 자유로움을 느꼈다.

조선대 무용과에 입학한 게 1997년. 바다부터 다시 시작했다.

“고등학교 때는 저 잘난 줄만 알았죠. 대학 와서 선배 언니들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자만했었는지 알았죠. 기초부터 다시 다지고, 보이지 않는 단역부터 시작했죠. 무대에 서면서 무용이든 뭐든 ‘지속적으로’하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또 앞으로 뭘 해야지 하는 다짐도 중요하지만 ‘오늘 속제는 오늘 해야한다’는 마음가지를 갖게 됐죠.”

그녀가 ‘무대’라는 공간에 대한 희열을 알게 된 건 대학교 2학년 때 ‘푸른 나무’라는 작품으로 참가한 서울무용제였다. 이때 커다란 세트에 매달려 움직이는 역할을 맡았었다.

“늘 같이 움직이는 군무만 하다가 나를 역활을 맡아서 무대에 섰는데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큰 무대여서 긴장감이 엄청 났는데 그 긴장감이 사람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 무대를 버리지 못하는구나”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는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다. 초등학교 방과 후 교사 아이들을 가르치다 “공부를 하지 않는 선생님이 의미가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2007년 조선대 교육대학원에 입학했고, 연구 조교로 활동했다. 교육대

학원 재학중 추천을 받아 참가한 오스트리아 비엔나 댄스페스티벌은 김씨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

“눈이 확 트이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 혼자 무용만 개구리였구나 싶었죠. 전세계 무용수들과 안무가들도 많이 만나고 레슨받고 그러면서 많은 걸 깨달았죠. 정말 멋진 공연들을 많이 보면서 무대에 대한 갈증도 많아졌어요.”

김씨가 소속된 광주현대무용단은 전국무용제에서 대통령상과 금상 등을 수상한 저력있는 단체로 무대에 설 기회가 많았다.

그녀에게 있을 수 없는 작품은 2009년 작 ‘천개의 공간’이다. 전국무용제에서 금상을 받은 작품으로 이 작품에서 주역으로 발탁됐고 연기상도 수상했다. 이후 ‘연의 노래’, ‘국창 임방울’ 등 현대무용단의 대표작들에서 주역으로 뛰었다.

“처음 주역 제의를 받았을 때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저와 어울리지 않는 공간에 억지로 저 자신을 데려다 놓은 느낌이랄까요. 실재에 대한 두려움도 많았어요. 임지형 교수님과 안무자였던 박종민 선생님이 계속 격려해주셔서 한번 해보자 했죠. 대학 입학해서부터 군무진으로 활동하며 기본을 다져 놓은 게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저희 무용단 작품들이 강하다 보니 강렬한 분위기를 표현하는 것과 지구력만은 자신 있었죠.”

지난 2007년부터는 ‘춘향 스캔들’을 시작으로 직접 안무한 작품들도 무대에 올리기 시작했고, “그들만의 게이트”는 광주무용제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제가 여러 보이는데 춤을 출 때는 강한 느낌을 준다든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무대에서 테크니코 중요하지만 표정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많은 신

2009년 전국무용제 연기상 수상
대학서 스포츠심리 박사과정 시작
여름엔 美 뉴욕서 댄스 연수 계획

경을 쓰는 편이죠. 전 공연 준비 기간 동안 ‘의문의 시간’이 긴 편이예요. 공연 당일날은 다른 무용수들이 스태비가 하기 전에 미리 무대에 올라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자기 암시라고 할까요. “그때 즐기자, 즐겨보자” 이런 마음으로 무대에 오릅니다.”

올해부터는 전남대 대학원에서 스포츠 심리 박사 과정을 시작한다. 그녀의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이가 외할머니다. 딸벌이로 바빴던 부모님 대신 외할머니는 늘 매니저를 자처하셨다. 하지만 작고 그녀가 주역으로 무대에 설 때 객석의 할머니 자리는 비어 있었다. 할머니를 떠나 보낸 후 체계적으로 공부해 노인들의 심리와 무용을 결합한 무언가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후에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나눔이나 재능기부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여름에는 뉴욕에 할당할 머무르며 페리 댄스 스튜디오 등에서 연수를 받을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전국무용제에 도전하는 것도 올해의 과제다.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전국무용제에 대해 고민하는 그녀에게 웃으면서 말했다. 무용제에서 안무자와 무용수 둘 다 하면 좋겠지만 하나만 택해야 한다면 무용수였으면 좋겠다고. “당신이 정말 오래까지 무대에서 춤을 출려면 좋겠다”고, 정말 그녀가 그랬으면 좋겠다. /글=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김미선을 말해주는 세가지 키워드

“예술의 모태는 두 스승...홀로서는 법 배워”

▲외할머니
외할머니는 몸이 불편하셨지만 부모님 대신 무용을 하는 나를 늘 도와주셨다. 지금 생각해 보면 할머니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무용의 길을 가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전남대 박사과정을 시작하게 된 것도 할머니의 영향이다. 앞으로도 문화나눔을 통

해 못했던 효도를 하고 싶다.
▲내인생의 멘토
조선대에 입학 해 만난 임지형 교수님은 내 인생의 소중한 인연이다. 무용이러게 멀리 보며 조금씩 걸어가는 것이라는 걸 알게 해 주신 분이 바로 임지형 교수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라는

말씀을 하시며 나를 준비하게 만들어 주셨다.

▲천개의 공간
무용수로서 영광과 발견을 하게 만든 작품이다. 대회 후 무용수는 기교를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어린 연기를 해야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든 작품이다.
관객과 소통하며 눈시울을 훔칠 수 있는 무용수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 후 나에게서 무용은 인생의 희로애락을 열어내는 게이트로 다가오게 되었다.



- ▲김미선은
• 1979년 광주출생
• 조선대 무용과·교육대학원 졸업
• 전남대 체육학과 박사 과정
• 조선대 무용과 객원교수, 광주대학교무용과 교사
• 18회 전국무용제 연기상
• 18회 광주무용제 금상
• 36회 조선대학교 무용경연대회 지도상
• ‘그들만의 gate’ ‘선에 관하여’ ‘나비효과’ 등 안무

A large advertisement for Lotte Department Store (롯데제이티비) featuring various travel packages and events. The ad i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 Top Left: Lotte Department Store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1577-6511).
- Top Middle: '3월 출발자 한정!' (March Departure Special) with packages for Shanghai/Hangzhou/Suzhou (419,000), Beijing/Manli/Changsheng (359,000), and Beijing/Manli/Changsheng+Jinmen (569,000).
- Top Right: '중국' (China) section with packages for Beijing/Manli/Changsheng+Shijiazhuang (419,000) and Beijing/Manli/Changsheng+Jinmen+Jinmen (569,000).
- Middle Right: '일본/중국 해외' (Japan/China Overseas) section with packages for Kyushu/Fukuoka (299,000) and Chongqing/Chongqing/Chongqing (479,000).
- Middle Left: '유럽' (Europe) section with packages for Europe 4 countries (2,190,000) and Europe 4 countries + Croatia/Slovenia (2,190,000).
- Middle Middle: '동남아' (Southeast Asia) section with packages for Bangkok Pattaya (499,000) and Phuket (579,000).
- Middle Right: '미주' (USA/Canada) section with packages for USA/Canada 3 cities (1,590,000) and USA/Canada 3 cities (2,090,000).
- Middle Right: '대양주/괌/사이판' (Oceania/Guam/Saipan) section with packages for Oceania (1,190,000) and Oceania (2,390,000).
- Middle Right: '스페셜' (Special) section with packages for France (1,290,000) and Africa (6,990,000).
- Bottom: Contact information and a list of Lotte Department Store branches across the country.